하가陳述하야라

答 先次君의宗敎라고하는말은무엇을意味한는냐君의게反問코저한다뭐그러냐하면宗敎라는말을佛敎에適用함이正當치안을가한다

問 宗敎라는말은一般이個人의靈과造物主의사이에完全한合一또는調和를成立식이기爲한敎條 儀式 齋戒 의組織을意味하는것이라고信할수있다 그러치안는것이냐?

答 만약宗敎라는것이그런것이라하면佛敎는宗敎가안이다 佛敎에있서서는盲目的信仰을가지고承認하지안으면안될宗義라는것도없고救濟에傳授할儀式도없고 齋戒를받을造物主도없고救濟하여줄靈魂도없는것이다

A. 佛敎와神의觀念

問 그러면君等의佛者는無神論者냐?

答 만약君의말한바無神論者라는것이人格的神의觀念을排斥한다하면우리佛徒는無神論者다 그러나한약現象의背後에있는實在와實體의觀念을全部否認한다면우리佛徒는無神論者가안이다 그럼으로宗敎라는말이宇宙의法則을가지고個性에合一케한思考의方法또는生活의方式을意味한다하면佛敎도또한宗敎이다 그러나現在西洋의用語로말하자면佛敎를道德哲學이라고分類하야말한것이完全하다 그러치만은次後에말한것도妥當치안타 佛敎라는것은외히려思索的調練이라말할수있다 또는特別한見地에一致케하는生活의方式이라고말할수있다

(六十一頁에繼續)

인즉 이곳에서도 佛敎傳道를 함아엇더하냐고 勸합니다 그래서 八月二日에는 三長市三上洞에서 三長公立普通學校를 빌려가지고 「信仰生活의價値」라는 題로水月庵主催下에公開傳道講演을 하엿읍니다 그런데이곳은 意外로도 一般市民의歡迎이커서 조고만한 市場임도 不拘하고 聽衆이三百名以上이나 모아주엇습니다

八月三日에는 茂山行의筏木을타고 豆滿江에 동실〈 떠서오다가 暴雨를因하야 興岩洞에서 投宿하고 다서八月四日에 茂山行의筏木을타고 오다가 潤島땅을 거쳐서 水月庵에 와서投宿하엿읍니다 白頭山에 一週日以上이나 露宿을하며 來往八百餘里길이나 徒步를 敢行한 몸이라 八月五日은 水月庵서 떠나가려하여도 떠나갈수가업습니다 그래서이날은이곳에서 쉬기로하엿읍니다 八月六日에 떠나려한즉茂山佛敎婦人會員이 모혀들며 說法會라도 더한번 여러달라하며 出發을 挽留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水月庵서 金剛經說法會를 열게되엿읍니다 이水月庵서 茂山邑까지는 五里조금 남짓한 곳인데平壤의永明寺비슷하게 생긴집입니다 水月庵앞으로는 豆滿江水가 溶々하게 흘러가고 이름모를間島山이 싸건너벌판에 늘처소사서 구름을이고잇읍니다 「계속」

불상해설(佛像解說) 【四】

金海潤

이세상사람으로붓 가장부귀영화(富의 대도사(大導師)가되시나 때에나 (貴榮華)의꼭정(絕頂)이라고할임금의 하 삼십오세이여섯다。그후사십여년동 위에 오르실려자는 그것을 헌신짝같 안 공수이돌아단이시면서 모든중생(衆 이 내여버리고 수목이욱어진깊은산속 生) 을위하시사 한평생는포한법을 연 으로 차저가시서 취옹에여러선인(仙 설하시다가 칠십구세(七十九歲) 에구 人) 들을만나보고 고행솔이 (苦行出 시려(拘尸羅) 성에서 열반(涅槃) 에 世) 의법을물엇스나 다ㅡ만족을얻지못 드시엇다。

하고 다시우루베라촌(優婁頻羅村) 고 형상(形像)이가여래(釋迦如來) 입 행림(苦行林) 이라는곳에가서서 여섯 멸(入滅) 하신지 이천구백여년 지금 해동안 고행을하섯다 그러나이것역시 에있어서 그불상(佛像) 은 헤알릴수 (苦行出世) 한 (解脫涅槃) 을구하는묘법(妙 없이 관수이많이이다

法) 이 안임을알으시고 이염선하(尼連 금불(金佛) 동불(銅佛) 철불(鐵佛) 禪河) 에 목욕(沐浴) 하시고 한마을 목불(木佛) 토불(土佛) 회화(繪畫) 녀자의 여바지받은 젖죽(乳糜) 으로 등여러가지자료(資料) 로조성(造成) 서 기갈(飢渴) 을 면하시고 가랑이 하엿나니쇠나(鐵羅) 같은 나라에는금 정각산보리수하(正覺山菩提樹下) 에단 강석(金剛石) 으로된불상(佛像) 도있 좌하사유(思惟坐) 하기 칠칠일만에화 다고한다 그모양을잠간말하면

면(鄭然)히 크게깨치서 인천(人天) 한생물(衆生佛) 동자형(童子形) 으로 오른손으로 하늘을가르치시고 왼 손으로땅을가르치심이름이니라

사유상(思惟像)이석존께서래자불에후 일(後圓) 엽부수하(閻浮樹下) 에서가 부좌(跏趺坐) 를하시고무상(無常)을 사유(思惟) 하고기시는것이니라

고행상(苦行像)이관수이돌아단이면서 보든고행(苦行) 을하심을지린상이니라

항마상(降魔像)이보리수하(菩提樹下) 에서 정각(正覺) 을하시고취할때 여 러마군(魔軍) 들이와서 수행(修行) 하시는데 방해(防害) 장애(障碍) 함 에이것들을 항복(降服) 받고기어히성 불하시는 형상을나타낸것이니라

출산상(出山像)이산을나오시서 보리 수하금강좌(菩提樹下金剛座) 로가시고 취하시는것이니라

설법상(說法相)이설법하시는상을나타

변것이니라。

멸린상(滅法相)·구시라(拘尸羅) 성에서 이세상을떠나시는 형상을기린것이니라

석가여래의협시(脇侍)·석가여래를모시고있는 좌우(左右) 두분의 보살님

은여러가지로다름이있나니 혹은 약왕(藥王) 약상(藥上) 두보살님, 혹은문수(文殊) 보현(普賢) 두보살님, 혹은관음(觀音) 허공장(虛空藏)두보살님, 혹은관음(觀音) 극장장(金剛藏) 두보살님, 혹은관음(觀音) 집금강신(執金剛神) 두보살님, 협시(脇侍) 로하신오며 또문수(文殊) 보현(普賢)관음(觀音) 미륵(彌勒) 사보살(四菩薩) 이협시가되여서 석가여래를모시고있는것도 있나니라。

三、로사나불(盧遮那佛)

로사나불은(盧遮那佛名)에 대하야 잠간말할것같으면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에 로사나를 비로사나(毘盧遮那)라하였나니 비(毘)는 번역하면 「여러가지」뜻은말이오 로사나(盧遮那)는「밝은빛」이라는말이니 부처님의 신지(身智)의 여러가지밝은빛을 모든중생(衆生)의게 비추워 이사무애(理事無碍)의법을 가르쳐주심을 이름이니라。

이것은 석가여래의본신(本身)이일체처(一切處)에 두두하신뜻을말함이니 다시말하면 불교에 있어서불신(佛身)에대한 사상이 같달한점과 사바세계 교주(敎主) 석가여래(釋迦如來)가 응화신(應化身) 응에대하야 응화신의본신(本身)으로써 원우주에차이있는 진실한불신(佛身)을 인정하야 이것을 로사나불(盧遮那佛)이라고하였나니 이두가지는 본신(本身)과 분신(分身) 관계로서 로사나불을여러나서 석가여래가있음이 고석가여래를 떠나서 로사나불을 말할수없나니라。

범망경(梵網經)에이르되 본신(本身)의 로사나불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대상(臺上)에 가부좌(跏趺坐)를하시고 그주위에 일천연엽(千葉)우에는 일천의석가여래가나타나시며 그한연엽우에는 백억(百億)나라가있으며 또그나라마다 한분씩의 석가여래가기시는데 모두보리수하(菩提樹下)에 앉거서일시에성불하셨다하았으며 이 백억석가(百億釋迦)는 로사나(盧遮那)를 본신(本身)으로한다고말하였나니라。

끝으로로사나불의 상호(相好)를말하면 대개 연화대상(蓮華臺上)에가부좌(跏趺坐)를하시고 오른손은손바닥을피여들고 왼손은 무릎우에 그양두나니 후세에이른바 우시무외좌시원(右施無畏左施願)이라는 모든구처님의공통한 설법상(說法相)이니라 팔배(光背)에는 화불(化佛)과 비천(飛天) 등이 무수히있으며 또여러로사나불상에는 천백억석가불(千百億釋迦佛)이 모와서불계(佛戒)를설하는의상(儀相)을 표현하여있나니라。

四、대일여래(大日如來)

진언밀교(眞言密敎)의 본존(本尊)인대일여래(大日如來)는 범음(梵音)으로말하면(Vairocana)본서 앞에말한로사나불과 거이같으나조금틀림 넘어잇나니라 그것은크다는뜻을가진마하(摩訶)·과 글자를더하야 마하비로자나(摩訶毘盧遮那)라하나니라 대일경소(大日經疏)에 이르되「범음(梵音)비로자나(毘盧遮那)는 천(天)의별명이니 어떠한물 없이고고루밝게하는뜻이니라 그런데 세간의해(太陽)는만물의겉을 비출수있으나 속을밝어줄수없으며 광명이밝으면다른한편 본어떠우며 낮은 광명하나 밝은감수하되 여래(如來)의 지혜(智慧)의 광명(日光)은이 편치안이하고 일체처(一切處)에두루하야 대조명(大照明)을 놓으시나니 내외방소주야(內外方所晝夜)의다름이없음으로 세간의해(太陽)와 견줄수없으나 걸마를강은들이있음을 게 되서크다란뜻을가하야 마하비로자나(摩訶毘盧遮那) 라고한다」고하였나니다

범망경(梵網經)이나 화엄경(華嚴經)의 교주(敎主)인 로사나불은라 화(蓮華)로서 불형(佛形)을하고기시는데 이대일경(大日經)의교주(敎主)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머리에는관을 (冠髮)이잇고 보살형(菩薩形)을하셨나니라 다음에 두어가지실례(實例)를들겠다

첫째。금강계만다라본존대일여래(金剛界曼荼羅本尊大日如來) 이것은금강계만다라 오대성불(五大月輪)의 중앙불오존(中央佛五尊)의중존(中尊)이니 금강지륜관상(金剛界七集卷上)에 의하면「몸빛은 백육색(白肉色)으로서 머리에는 오불(五佛)의보관(寶冠)을 씌시고 지권인(智拳印)을하셨다」하였나니 이것이 금강계대일여래의 형상의특색(特色)이니라。

또금강정경일자정륜왕유가일체시처염송성불의궤(金剛頂經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에의하면「대일여래의몸은 월륜(月輪)이 소월(素月)과같으며 일체의상호(相好)로써 법신(法身)을 장엄(莊嚴)하였나니금강보관(金剛寶冠)을씌시고 왼손만을 장식(莊飾)하셨으며 지권인을하시고사자좌일륜백연대(獅子座日輪白蓮臺)우에앉었다」하였나니라지권인(智拳印)이라하면 인상을말할때 우에서도조금말하였거니와 중간손가락과 무명지와 적은손가락으로써 엄지손가락을세워서고 둘째손가락은엄지손가락의 등을눌어는것을이름이니 이와같이두손을다 지권인금강권(金剛拳)을만들어서오른편 주먹으로서 왼주먹의 둘째손가락의 끝마디를 잡는것이 금강계만다라의 대일여래와 수인(印)이니라。

둘째。태장계만다라본존대일여래(胎藏界曼荼羅本尊大日如來)。이것은 태장계중대팔엽원(胎藏界中臺八葉院)의중존(中尊)으로서 지권부동과(智拳不動印)에의하면「대일여래(大日如來)는 팔엽연화대상(八葉蓮華臺上)에기시는데 왼몸이 금빛이시고보관을(금

彩形) 과같이 보련화상(寶蓮華上)에 가부좌(跏趺坐)를하셨으며 머리에는 오불보관(五佛寶冠)을쓰시고 흰비단 옷을입으시고 이마에는원광(圓光)이 있나니 오색빛이섞여서 머리빛은구름과같고몸빛은 홍금(紅光)에쌓여서있으며 팔뚜른머리같은데에다묶워있고 금이당(金耳璫)을하셨으며 목둘에는 중간중보영락(重間衆寶瓔珞)과 청주만(靑珠鬘) 화만(華鬘) 등을드리워서 무릎우에이르나니라 좌우두팔에는 명낙(瓔珞)이있고 팔목에는금환(金環)이있으며 두손은포개서무릎우에놓으되 오른손은우에 왼손은밑에놓아두며 엄지손가락을서로맞대어서 배사구무릎에 두고 입정상(入定相)을하시고기시며 허고가벼운옷으로옷을삼고 여러가지 비단으로 아래옷을삼었으며 무릎비단으로만과(裙袴)를하셨고 록색(綠色) 비단으로뫼(帶)를하셨다」고하였나니라

이밖에일면십이비대일여래(一面十二臂大日如來)가있는데 금강보두각일체유가유리경일체여래여수금강정취승진실제상대아륜(金剛師子座菩薩一切瑜伽瑜祇經)에 다음과같은말씀이있다

「저때에 변조바가범(遍照薄伽梵)이 또한 가지〈여러빛을놓으시고 이마로는금강위로(金剛處怒)의 밝은빛을 놓으시사 모든보살들을비춰주시며 열두팔을가지시고 지권인(智拳印)을하셨으며 오봉금강(五峰金剛)과연화(蓮華)와 마니(摩尼)와 갈마(羯磨)와 구(鉤)와 색(索)과 소(鎖)와 법륜(法輪)등의 여러대인(大印)을가지시고 천엽대백연화(千葉大白蓮華)우에계시는데 몸은해와같으며 오계(五髻)의 광명(光明)이있으되시방(十方)에두루퍼지며 현문(玄門)으로미소(微笑)를하신다」하나라

그런데 이일면십이비대일여래(一面十二臂大日如來)는 대승금강(大乘金剛)이라고도하는데 해렴왕(海染王)과 동치(同體)라하야 해렴법왕(海染法王)의본존(本尊)으로써 승바(僧伽)도받나니라

五、약사불(藥師佛)

약사불(藥師佛)은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의 약호(略號)이니 법명(法名)으로「바이사쟈 구루 베이두류야 타타—가타」(Bhaisajya-guru vaidurya-prabhasa)라하나니 동방정유리세계(東方淨琉璃世界)의 교주(敎主)이시니라。

이부처님은 맹세에열두가지큰원을하시사이세상중생의 질병(疾病)을낫게하시고 수명(壽命)을 늘기하며 재화(災禍)를 없이게하며 의복(衣服) 음식(飮食) 등을만족케하며 또 불법(佛法)을닦어서 우업는정각(正覺)의 묘과(妙果)를 깨닫고저서원(願)한부처님이시니라 다음에그열두가지대원(大願)의 요지(要旨)를 들 것같으면

처음원。자타(自他)의신광명(身光明)이 청하여달나는원。

처이원。높은위덕(威德)으로 중생(衆生)을 개호(開護)하여달나는원。

처삼원。중생(衆生)의하고싶은것을만족케하여주고저하는원。

처사원。일체중생(一切衆生)으로써대승(大乘)에 평안히쉬이고저하는원。

처오원。일체중생(一切衆生)으로하여금 삼취계(三聚戒)를 가지게하는원。

처육원。모든불구자(不具者)로하여금 눈, 코, 귀등처근(諸根)이 완전(完全)하도록하고저하는원。

처칠원。일체중생(一切衆生)의 모든 병을 제거(除去)하고 신심안락(身心安樂)하야 우업는 그것을 (正覺)을 얻게하고저하는원。

처팔원。여자로서 남자가되게하여달나는원。

처구원。모든중생으로하여금 천마외도(天魔外道)의 결박과 사사악견(邪思惡見)을버서나서정견(正見)에 인섭(引攝)하고저하는원。

처십원。중생으로써 악왕(惡王)접적(劫賊) 등의환난(患難)을버서지게할원。

처십일원。괴갈(飢渴)한중생의게 밥과물을얻게하는원。

처십이원。가난하야이복(衣服)이 업는중생의게옷을얻도록하여달나는원。

그런데 이약사불에 대하야 고래로 양부만다라(兩部曼荼羅)가운데에 약사불의이름이업다하야 의심가지 이름이있으니 유유아축불(同體)과동치(同體)라하며 혹은해장계 태일여래(胎藏界大日如來)와 동치(同體)라하며 혹은석가불(釋迦佛)과동치(同體)라하며 혹은 무능승(無能勝)과 동치(同體)라하야 각설이분수하나라

다음약사불의 형상에대하야말할것같으면 아사박초(阿閦鞞沙)에의하면 팔뚜가지있는바

一、왼손바닥은피여서 시원인(施願印)과같이하며 오른손은들어서 시무외인(施無畏印)과같이하는것 二、왼손안에 보주(寶珠)를가지신것 三、왼손에는 대보유리약인(大寶瑠璃藥印)못원손을배사구무릎에다이고 오른손을 든것 四、왼손에약그릇을드신것 五、법계정인(法界定印)이라는것이니왼손을 피여서 배사구무릎에두고오른손을왼손우에모개놓고 투엄지손가락을서로부치는것 六、용신설법인(龍身說法印)이나오른손엄지손가락과 무명지를서로 부치는것 七、발우(鉢盂)와 석장(錫杖)을가지신것。이렇등가지〈가잇다한다。

약사불(藥師佛)과그협시(協侍)약사불의 협시는 일광(日光)월광(月光)양보살이됨이 보통이니 이두보살은 약사불의정토에있어서 약사불을도우며 무량중생을 제도하나니라아사박초(阿閦鞞沙) 이하면 두보살의 상용은 「일광보살(日光菩薩)은 인물이 적홍색(赤紅色)이며 왼손바닥에는 연꽃

륜(日輪)이 있고 오른손에는 만주꽃 (滿珠華)가 있으며, 월광보살(月光菩薩)은 왼쪽에 연꽃이 있으며, 월광보살(月光菩薩)은 왼쪽바닥에 월륜(月輪)이 있고 오른손에는 홍발연화(紅白蓮花)를 들고 계신다.」고하였나니라.

이밖에 문수사리(文殊師利)관음(觀音)세지(勢至)보현(普賢)무진이(無盡意)약왕(藥王)약상(藥上)미륵(彌勒)의 팔보살을 협시로하는 약사불도 있는바 이것을 팔보살만다라(八菩薩曼荼羅)라하나니라.

약사불과권속신(藥師佛及眷屬神)。세상에서 약사의십이신장(十二神將)이라하는 약사불의 권속신(眷屬神)으로서 「열두약차신(藥叉神)」이있다。이들열두신장들은 어떤사람이라도 약사불의 명호(名號)를부르고 공경하고공양(供養)하면 그를보호하야 일체의고란을벗어나게하고 모든원망을만족하게하여주는신장들이라하야 약사불을모시는곳에는 대개모셨나니라 그 이름을 낱낱이 적고 오른손에는 보검(寶劍)을 들고 있는 것이 신장(十二神將)의 이름과 같이 아래와 같이 있다。

궁비라대장(宮毘羅大將)
발절라대장(伐折羅大將)
미기라대장(迷企羅大將)
안저라대장(安底羅大將)
알이라대장(頞儞羅大將)
산저라대장(珊底羅大將)
인달라대장(因達羅大將)
바이라대장(波夷羅大將)
마호라대장(摩虎羅大將)
진달라대장(真達羅大將)
초두라대장(招杜羅大將)
비갈라대장(毘羯羅大將)

六、보당불(寶幢佛)

이부처님은 태장계만다라중대팔엽원(胎藏界曼荼羅中臺八葉院)의동쪽에 계시는부처님으로서 명명(梵名)은 라트나케―투(Ratna-ketu)라한다。보당(寶幢)이란이름의 유래를찾는것같으면 대일경소(大日經疏)백제권에 다음과같이 설명하여있다。

동방에계신 보당여래(寶幢如來)는 마음해가지고오른손에는 금강저(金剛杵)를 만지고 있으며 이란(幢旗)한빛과같도다 보당(寶幢)이라함은 보리심(菩提心)의뜻이니라 유하건대 상수가군사를통어하는데 담괴(幢旗)를 가지고 잘지휘(指揮)하야 적(敵)을 파하고 공명을세우는 것과같이 여래(如來)의 만행(萬行)도이와같아야 일체지(一切智)의 깃발을 가지고 당귀를상에서 보리수하(菩提樹下)에서 사다(四魔)의무리를 항복받었나니 이러함으로 보당불(寶幢佛)이라하나니라。

형상(形像)。태장부동과제이(諸說不同記第二)에의하면 「동방연엽상(東方蓮葉上)에계시는데 몸은조금엷은누른빛이고 이마에는유계(肉髻)가있으며 오색빛이나고 붉은가사(袈裟)를입었으며 오른팔을조금들어서서우고 손을피여서내밀고있는데 손가락은다루워 오른편으로향하고 왼손은가사(袈裟)고름이매여있는가슴유방(乳房)에 대이고계신다」하였나니라。

七、보생불(寶生佛)

이부처님은 금강계만다라남방월륜중위(金剛界曼荼羅南方月輪中位)에 열석하신부처님으로서 범명(梵名)은라트나―삼바바(Ratna-sambhava)라하는데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정등정지(平等性智)로부터출하야 보광명소(普光明照)등 사보살(四菩薩)을 다리고일체의재보(財寶)를 맡으신부처님이라하나니라。

형상(形像)비장궤(秘藏記)에의하면 「왼몸이 금색으로서 왼손은주먹을 쥐으시고 오른 손은 밖으로펴서무명지와 검지손가락은 굴하고 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 중간손가락은 펴였다.」고하였나니라

八、개부화왕불(開敷華王佛)

이부처님은 태장계만다라 중대팔엽원의 남방엽(南方葉)에 계시는부처님으로서 자세히말하면 사라수왕화개부불(娑羅樹王華開敷佛)이라하며 범명(梵名)은 삼구스미라라자(Saṃkusumitarāja)라고하는이로 대비만발(大悲萬行)의꽃은 잘보리의과실을 생육(生育)케하는뜻으로 이름이니라。

형상(形像)。태장부동과제이(諸說不同記第二)에의하면 「태장계만다라중대팔엽원의 남방엽에계시는데 왼몸이 금빛이시고 오른손 바닥밖으로내밀고 손가락은다루웠는데 조금왼편으로 향하여있다。왼손은가사(袈裟)의고름을잡고 배사구무릎에두었다」고하였다。

九、천고뢰음불(天鼓雷音佛)

이부처님은 태장계만다라중대팔엽원(胎藏界曼荼羅中臺八葉院)의 북방엽상(北方葉上)에 계시는부처님으로서범명(梵名)은 디바둔둔보히에―카니르그호―샤(Divadundubhinirghoṣa)라하는이로 구역(舊譯)에는 미묘성(微妙聲)이라고도하나 이저약하야 고 음여래(鼓音如來)라고한다。

대일경소백사(大日經疏卷四)에의하면 「북방에계신부동불(不動佛)은 대원경소백사(大日經疏卷四)에의하면 「북방에계신부동불(不動佛)은 대원신이 금빛으로서오른손은 엎어서부를 우에부치는데 손끝은땅에다루나니 이것은금강정경(金剛頂經)의 아촉인(阿閦印)인데 촉지수(觸地手)라이름하나니라 왼손은주먹을만들어서 오른다리를덮었다」고하였나니라。